

목포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결의

대회 앞두고 시민 역량 결집 다짐
시민 등 600여명 참석 결의대회
24일 개막 27일까지 4일간 진행

목포시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 2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목포시장 권한대행 이상진 부시장을 비롯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목포시 운영위원회, 범시민 추진협의회, 시민응원단 등 600여명이 참석해 식전 축하공연, 추진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운영위원회와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2023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구성돼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3년간 대외 협력체계 구축과 시민홍보, 손님맞이, 시민참여, 나눔봉사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또 올해 3월 구성된 700여명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시민응원단은 대회 기간 경기장에 방문해, 경기 관람과 열띤 응원을 통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시민응원단 대표 2인은 '목포시민이 다 함께 이루는 성공체전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주제로 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시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대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목포시 운영위원회, 범시민추진협의회, 시민응원단 등이 지난 2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대회 성공기원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회 준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20여 일 앞두고 대회의 성공 개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며 “정성 어린 손님맞이를 통한 감동대축전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모두 함께 앞장서 주시기

바라다”고 당부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개회식은 대회 이튿날인 25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은 27일 목포국제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무안군 고인돌공원 왕벚꽃길 1km 야간경관조명 설치 운영

무안군은 무안을 고절리 고인돌공원 왕벚꽃길 1km 구간에 야간경관조명(사진)을 설치해 4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인돌공원은 왕벚꽃이 만개해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찾는 벚꽃 명소로, 봄나들이 산책길이자 유명 봄철 드라이브 코스이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절리 고인돌공원부터 수반마을 입구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에 LED 등기구 184개, 투광등 151개를 설치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오징어 등을 300m 구간에 설치해 야간에도 방문객들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벚꽃길 산책과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고인돌공원 왕벚꽃길 야간조명은 벚꽃 개화부터 낙화까지 4월 한 달간 매일 일몰(오후 6시 55



분경)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올해 왕벚꽃이 알맞게 개화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꽃

이 만발한 무안에 오셔서 지친 일상 속 힐링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남군의회 ‘이동형 슈퍼마켓’ 지원 근거 마련

해남군이 ‘이동형 슈퍼마켓’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3월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 통과로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 최소한의 생활 편의시설조차 없는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지역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지원 시책과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공공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부 의원은 “이동형 마켓에 그치지 않고 생필품 배달 외 복지·돌봄 등과 연계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 등 농촌 기초생활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섬지역 필라테스 등 스포츠강좌 운영

섬 주민 건강한 삶 편의 증진

신안군이 최근 압해읍과 암태면에서 필라테스와 태권도 강좌를 개설하는 등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편의 증진에 나섰다.

그동안 신안군은 도서 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과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민간 스포츠학원이 전혀 없어,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 강좌를 받기 위해서는 인접 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또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용처가 없어 매년 받은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신안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스포츠학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공모 사업에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 운영’을 신청 선정됐다.

신안군이 신청한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는

섬사에서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는 지역 특화사업이자 다른 시·도로 확산 가능성이 큰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신안군은 공모 사업 선정과 함께 국민체육센터와 복지회관 등 기존 시설에 외부 강사를 모집해 스포츠 강좌를 개설했으며, 수강생 모집 결과 권도 55명과 필라테스 81명과 태권도 55명 등 총 136명이 신청했다.

자녀의 수강을 신청한 한 주민은 “아이들이 만족스럽고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며, 강좌가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향후 저점별로 다양한 스포츠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며, 주민들로 이루어진 스포츠강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만족도 높은 스포츠강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진 기자 sslee@kwangju.co.kr



우승희(왼쪽) 영암군수 배 저온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농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배 저온 피해 대책 논의...평균 20% 피해

영암군은 우승희 군수 등이 도포면 영호마을 등 영암배 주산지 농가를 방문해 저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배 농민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최저 영하 4℃까지 떨어진 이상 저온으로 배 재배지 일대에서는 알송마리와 배주가 검은색으로 변해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조사 결과, 저온 피해가 심한 일부 과수원은 전체의 70% 이상 피해를 입었고 농가 평균 20% 전후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우승희 군수는 농가에 개화기 이후 꽃눈 피해 상황을 고려해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지원 대책과 저온 피해 예방시설 확충 등 기상이번 대비 장기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인증 이벤트

한옥펜션 숙박권 추첨 제공

진도군이 4월 한 달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인증행사를 진행한다.

인증행사 기간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추첨을 통해 10명에게는

진도군 윤림공원 한옥펜션 숙박권을 지급한다.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한옥펜션 숙박권은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추첨 결과 발표는 오는 5월 2일에 진도군 누리집에 게시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을 방문해 10만 원 이상 기부한 후 답례품까지 주문하면 자동응모가 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특집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 70주년

— 1956년 창설, 60만 명의 꿈 키워온 예술 대제전 —
— ‘글로벌 스타’ 활약 호남예술제 수상자들 —
— 화보로 만나는 호남예술제 70년사 —



호남 예술제

멋과 맛 함께
반겨주는
신안 여행

Purple Island
반월도

꽃피는섬
예술만발
섬티아고

공간의 재발견②

어뽕서원
군영서원

대학자 고봉의 서원
선비정신, 전통문화 배움터로 변신



예향 초대석

식물 참모습 그리는 식물학 일러스트레이터

이소영

“결에 있는 식물과 더불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우리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④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유럽 소도시 기행①

‘진짜’를 만나는 즐거움,
독일 본 Bonn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⑩

따뜻한 봄날
당일치기 섬 여행

기획-구례 레포츠 관광

괴리산과 나랑하, 스카이런

섬진강을 발아래, 스카이 베이크

문화계 화제

예술 놀이터 만드는 기업들 ‘뚝딱’의 미술관’